군산시, 국가예산 확보 행정력 집중

예결소위 심의 대응 위해 도내 정치권 협력 강화

군산시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연일 분주한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군산시는 오는 2020년도 국가예산이 11월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로 회부돼 심의중인 상황으로 예산안이 확정 되는 12월초 까지 남은 기간 중점사업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지난 6일 강임준 시장의 국회 방문으로 전해철 의원 등 주요 예결위원들이 자동차대체부품산업 생태계 구축사업과,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 등 주요 사업 예산확보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했고, 지난 14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면담을 통해 예결소위 마지막까지 군산시 중점사업들이 정부 예산안에 충분히 반영 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의를 이어갔다.

이어서 19일에는 윤동욱 부시장이 국회를 찾아 전라북도 국가예산팀을 비롯한 주요 의원실 보좌관, 도내 협조 시·군 서울사무소장 등과 간담을 갖고 예산투쟁의 일선에서 고생하는 실무자들을 위로하면서, 남은 10여일간의 예결소위 심의 대응을 위해 끝까지 힘을 모으자며 도내 정치권 및 실무 보좌관간의 협력체계 강화에도 나섰다.

윤동욱 부시장은 "이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예결소위로 회부되어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다"며 "그동안 주요 사업 예산확보를 위해서 기재부 등 설득과 대응논리 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우리시 재도약을 위해 시민과 함께 노력했던 그동안의 시간과 땀방울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국가예산 확보에 혼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 주요사업으로는 ▲중고차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 ▲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 ▲일감창출형 대체부품 생태계구축사업 ▲ 새만금 장기임대용지 추가 조성 ▲어청도 노후여객선 대체건조 등이며 9월 3일자로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은 이번달 예결위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일 최종 확정되게 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 수산물연구가공거검단지 해외 수출

지난 1일 대만 이어 미국에 약6톤 상당 수출… 중국과도 계약 완료

군산시 수산물연구가공거점단지 입주업체인 '화우당'이 입주 3년만에 대만, 미국, 중국에 수산가공품을 첫 수출하게되는 쾌거를 이뤄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일 대만 고급백화점인 소고백화점에 5천불상당(1톤)의 초도물량 수출을 시작으로 미국 LA에 위치한 ㈜KHEE 및 H마트 두군데와 납품계약 체결완료해 11월과 12월 말에 약 3~4만불(약6톤)상당의 물건을 수출한다. 또한 중국과도 수출계약이 완료돼며 오는 12월에 5만5천불상당의 제품이 수출된다고 밝혔다.

특히 20일에는 대만 소고백화점내에서 쇼케이스행사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대만시장 공략을 위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화우당은 지난 20여년이상 수산물 도소매의 오랜 경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난 2017년 가공식품을 개발해 시장에 진출했다.

군산 대부분 수산물가공업체가 1차원적 단순 가공업체가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화우당은 1인 소비장시장을 겨냥해 간편조리가 가능한 즉석해물탕, 해물볶음3종, 낙곱새, 해물스파게티 등 다양한 간편조리식품(Home Meal Replacement)의 개발과 함께 품질향상에 공들여 타제품과 차별화를 두고 있다. 국내 판매 활동뿐만 아니라 식품 글로벌화 추세에 맞춰 해외시장개척에도 적극 활동했다.

이에 군산시 수산진흥과는 그동안 관내 수산물 가공업체육성 및 경쟁력향상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을 해 왔다. 특히 해외시장 개척, 마케팅 및 역량강화를 위해 국내외박람회참가, 해외바이어 매칭, 홈쇼핑참가, 수출상담, 통번역지원, HACCP관리 등 전문적인 행정서비스를 직접 지원해왔다.

또 품질강화를 위한 저온저장시설 지원 및 타 공공기관 수출지원사업 연계지원 등 든든한 지원군으로 직간접적으로 힘을 보탰다.

화우당 업체 김손빈대표는 "그동안 수산진흥과의 관심과 다방면으로 지원해주신데에 감사인사를 드린다"며, "더욱더 고부가가치 제품개발에 힘을기울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약속한다"고 전했다.

이성원 수산진흥과 과장은 "관내 경쟁력 있는 수산물가공업체를 지속 발굴해 유통, 수출, 마케팅, 품질 등 전반 분야에서 물심양면 지원해 지역 수산가공업 분야를 활성화하고 글로벌업체육성 및 제품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제3기 2030 정책기획단 최종발표회 개최

'리틀 포레스트 in 익산 등 13개 신규 정책 · 사업 발표

익산시는 19일 예술의전당 세미나실에서 정헌율 익산시장, 전문가 심사위원단과 40명의 정책기획단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기 2030 정책기획단 최종발표회를 개최했다.

2030 정책기획단은 지난 3월 Kick-off 회의를 시작으로 분과회의(36회), 전체회의(6회), 전문가 자문·컨설팅 회의(3회) 등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리틀 포레스트 in 익산', '익산대로 안심(安心)의 거리 조성', '익산 자전거 로드 활성화 사업', '익산 에코 테마파크 조성사업', '함라 도문대작 먹거리 축제', '익산 맞춤형 농가 카페 사업-더하다(益)' 등 13개 신규 정책과 사업이 발표됐다.

정헌율 시장은 "9개월 동안 익산시 발전을 위한 신규 정책과 사업 발굴을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화합과 생동감 넘치는 조직문화 제고에 기여한 점에 감사드린다"며 "제안된 사업은 미래 익산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 2030 정책기획단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중요 비중을 차지하는 2030 세대 멘티와 경험이 풍부한 4050 세대 멘토로 구성됐으며 2017년부터 올해 3년째 운영 중이다.

/익산=장인천 기자

정헌율 익산시장 악취저감 주민 감사패 받아

정헌율 익산시장이 악취저감 위한 적극 행정을 펼쳐 19일 오산면 장신휴먼시아1·2·3단지 입주민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장신휴먼시아 입주민들은 관리사무소가 연말연시를 맞아 진행한 사랑의 쌀나눔 행사에서 오산 장신지구의 고질적인 악취오염원을 해소해 작년과 올해 축산악취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며 정 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그동안 모현·송학·오산면 지역은 축산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서부권 악취의 근원지인 영명농장과 MOU를 체결하고 악취배출시설을 폐쇄해 익산 악취의 30%를 차지하고 서부권 악취의 95%에 이르렀던 축산악취를 해소한 바 있다.

또 시는 이후에도 인근 지역 축사를 지속 점검하고 간헐적으로 모현동 일대에 악취를 유발하는 현영동 소재의 도축시설을 집중 관리한 결과 올해 이 지역의 악취민원은 익산시 전체 악취신고 민원의 5%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악취 및 미세먼지, 대기·수질 등 각종 사업장에 대한 관리 및 생활악취 등 주민 불편해소로 익산시가 환경친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민관협의회·시민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하절기 악취 취약시기는 지났지만 심야시간대에 상습적으로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을 지속 점검해 부송·영등·어양동 지역 악취 해소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 장양원 기자

익산시, 관광공사와 관광활성화 논의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육성지원사업 협력 자리 마련

익산시와 한국관광공사가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육성지원사업에 적극 협력해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19일 양 기관은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고 지역관광협의체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앞서 익산문화관광재단은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육성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으며 익산시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7월 한국관광공사 원주본사에서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진 바 있다.

이에 따라 익산문화관광재단은 지역관광협의회 구성 및 운영, 관광실태조사, 지역관광 중점기능 수행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지역 맞춤형 농촌관광 프로그램인 '하룻밤만 재워줘'는 농촌체험마을에 방문한 방문객이 농촌체험, 숙박, 먹거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또 금강권역 관광프로그램으로는 성당~용안~웅포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권역별 관광프로그램 개발해 운영한다.

/익산=장양원 기자

지난 18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에서 5개 기관이 모두 모여 발대식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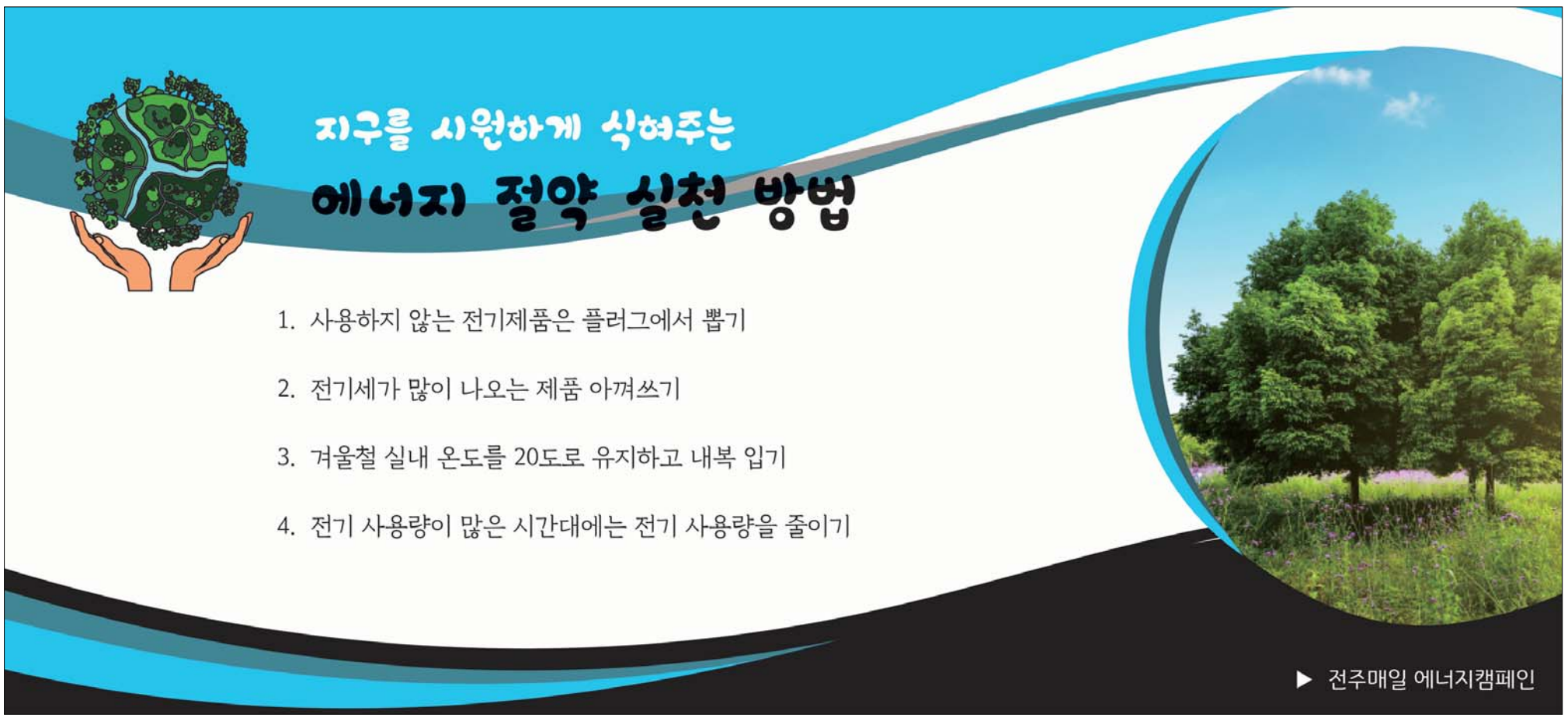
군산시, 산업단지 협력지원 체계 구축 합동점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시 산업단지 내에 전기·가스안전 확보를 위해 유해화학취급시설 및 소재·부품 제조기업 대상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 군산시청, 한국산업단지공단,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과 협력지원 체계를 구축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안전진단은 지난 14일부터 22일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 합동으로 군산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18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에서 5개 기관이 모두 모여 발대식을 가졌다.

이번 합동점검으로 선제적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 등 고용위기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사회와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무료안전진단은 작년 청주와 오창, 오송 산업단지를 시작으로 이번이 2번째 행사다.

군산시 관계자는 "올해는 현대중공업 도크 폐쇄 및 한국 GM공장 철수 등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지역 산업단지 내 유해화학취급시설은 물론 최근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에 따른 정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소재·부품 생산기업 대상을 추가해 실시한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